

+ 주님은 나의 목자



안녕하세요. 저는 윤순현 수녀입니다.  
 강진에서 약 12km 떨어진 시골 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건축업을 하셨던 아버지와, 무척 고운 춤을 추셨던 어머니 사이에 육남매로  
 태어났지요. 어머니가 춤을 추실 때 저고리 소매와 치마 사이로 보이는 버  
 선 흰 코가 지금도 기억에 아름답게 떠오릅니다.  
 유년시절, 오빠 등에 업혀 동네에서 떨어진 예배당에 갔던 기억과 무용시  
 간에 배운 춤동작을 해보이며 잘 놀아준 언니, 착한 동생들이 있습니다.



1983년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도예를 전공했고, 졸업 후 강진 도요지에서  
 활동하던 중 1985년 결핵성 늑막염으로 작업을 멈추고, 정신지체  
 공동체에 머물며 요양을 하던 중에 1986년 사랑의 씨튼 수녀회 성소담당이셨던 김희자  
 수녀님의 초대로 성소 모임에 참여하며 1988년에 입회했습니다.



1991년 은혜학교를 첫 사도직으로 시작하여 1993년 소명여자중학교, 작은 안나의집,  
 마가렛공부방, 용안분당, 본원 안내실, 지금은 작품 활동 소임을 하고 있습니다.

1989년 청원기 후반, 문말린 수녀님과 이신자 수녀님의 초대로 씨튼 피정의 집 십자가  
 의 길 15처 작업을 했고, 1997년 김승혜 수녀님의 초대로 미국 모원의 까리파스 크리스  
 티 성당의 15처를 작업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청원  
 기에 처음 붓을  
 잡고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걱정  
 을 했지만, 믿고  
 초대해주신 수녀  
 님들께 '예, 해보  
 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드렸던 것이 감사와 기쁨이었습  
 니다. 소명학교시절 다이안 수녀님의 초대를 받아 학교소임 수녀들을 위한 프로젝트로  
 미국 모원과 수도회의 문화유산을 체험한 복된 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이안  
 수녀님! 엘리사벳 수녀님! 앨리스 수녀님! 필립 수녀님! 폴린 수녀님! 깊은 감사를 드립  
 니다.



니다.

소임 중에 보람을 느꼈던 것은 2004년 노인 전문요양원에서 치매와 뇌졸중으로 인해 여린 눈빛과 서성이는 마음으로 불  
 안해하는 분들의 식사 수발과 미술활동, 신문 읽기와 춤추고 노래하며 지냈던 날들은 학교 사도직을 하면서 굳어졌던 몸과  
 마음을 풀어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에서 친구와 손잡고 성요셉 여학교에 입학한 첫날! 머리에 하얀 면사포(처음 본 미사포가  
 면사포로 보였습니다.)를 쓰고 부르는 성가는 하늘나라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성요셉에서의 성탄장식과 중간놀이 시간의 포크댄스는 학교생활의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  
 서 졸업할 때가 되자 마음이 몹시 슬펐습니다. 수녀님들의 웃음소리, 달콤한 쿠키냄새, 노란 오  
 렌지 주스 컵, 수녀원으로 가는 길, 마당에서 펼쳐지는 세탁물의 흰 물결, '수녀원에 놀러와~!'  
 하며 고옥 안아주셨던 수녀님들의 손길이 지금도 기억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지나온 삶의 여정!  
 이제는 주님께서 담아주신 은사를 펼치고 싶습니다.  
 '세상을 위한 사랑의 여성!' 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청하며 하느님과 수도회에 감사드립니다.

## + The Lord is my shepherd.



Hello! I'm Sr. Youn Sun Hyon. I was born in a remote little village around 12km from Gangjin. My father worked in construction and my mother was good at traditional Korean dancing with elegance. My memory goes back to the moment that I was fascinated by my mother's beautiful dancing, stealing a glance at her Jeoggori (Korean traditional jacket) and Beoseon (traditional socks). I have five siblings. My older brother used to carry me on his back to church, and my sisters played with me, showing the dances they learned at school.



I graduated Choson University, Gwangju in 1983 majoring in pottery, and worked at the kiln site in Gangjin. However, a lung illness stopped me from working there and made me to recuperate at a



special center. While my recovering, I came to know Sr. Kim, Hee Ja, who was a vocation director then, and entered our community in 1988.

I was missioned to Eun Hae School (1991), Somyong Girls's Middle School (1993), Little Anna's House for the elderly, Margaret Study House, Yong An Parish, Reception desk at Provincial House, and now I am fully involved in art making. When I was a



postulant in 1989, Sisters Marlene and Lee, Shin

Ja asked me to make the Stations of the Cross for Seton Retreat House, and in 1977 Sr. Kim, Sung Hae invited me to make the Stations of the Cross for Caritas Christi.



Looking back to my beginning of art work as a postulant, I was worried and grasping the brush in my hands asked myself whether I really can do it or not. However, it was such a joyful experience to respond

with willingness to my sisters. I still cannot forget the blessed time of experiencing our Mother House and the heritage of our community in USA when I was working at Somyong Girls' Middle School. Especially I am grateful to Sisters Diane Temple, Alice, Mary Philip, and Pauline.

What I felt rewarding during my apostolate work was the time that I spent with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stroke at a skilled nursing home in 2004. The days were filled with helping those with depressed and unsettled eyes to eat, move, read newspaper, dance, do art activity, and sing. For me it was the time to relax myself from my stiffened and tired body and heart because of the school ministry.

On the first day I entered St. Joseph Girls' High School with my friend we sang hymns with a white wedding veil (the veil for the Mass seemed to me like a bridal veil), and it made me feel I was in heaven. Christmas decorations and folk dancing during the break time in St. Joseph School was a great pleasure. So when I graduated, I was very sad. Sisters' laughter, sweet cookie smell, yellow orange juice cup, the way to the convent, white wave of laundry fluttering in the yard, and the hugs of the sisters saying 'welcome to the convent at any time!'... all the memories are carved in my heart. The life journey of God's Providence!



Now I want to unfold the gift the Lord has given to me. I thank God and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by asking the grace to live as a "woman of love for the world."